

천하의 명당에 누웠건만 옆구리가 시리구나

46 영조 원비 정성왕후- 흥릉

정성왕후(貞聖王后)는 1692년(숙종 18)에 태어나 1757년(영조 33)에 소생 없이 66세로 승하했다. 달성 부원군 서종제의 딸이다. 1740년(영조 16) 혜경(惠敬)이라는 존호가 올려지고 생전에 장신(莊愼)·강선(康宣) 등이 덧붙여졌다. 죽은 뒤 1772년 공익(恭翼)이 추존되고, 인휘(仁徽)·소헌(昭獻)이 추상되어 '혜경장신강선공익인휘소헌'이라는 존호를 가지게 되었으며, 1778년(정조 2) 휘호로 단목장화(端穆章和)가 올려졌다. 시호는 '혜경장신강선공익인휘소헌 단목장화정성왕후(惠敬莊愼康宣恭翼仁徽昭獻端穆章和貞聖王后)'라는 긴 이름이다.

왜 이렇게 존호가 덧붙여져 긴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시호는 살아온 이력서다. 그녀는 43년 동안 궁궐 생활을 하면서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권세를 휘두르지 않았다. 66세로 승하하자 영조는 곡진한 심정으로 그녀의 행장을 기록했다. '40여 년 동안 대궐에 살면서 늘 미소 띤 얼굴로 과인을 맞아주고 왕실의 두 어른을 극진히 받들어 모시고 게으른 빛이 없다. 과인의 생모 숙친 최씨의 신위를 모신 육상궁에 기울인 정성 또한 지극하여 고마움에 답하고자 기록하노라.'

영조는 왕후의 묘자리를 정하면서 자신도 그 곁에 묻히길 원해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영조는 그 자리에 묻히지 못했다. 묘지를 정하고 능을 조성하는 것은 다음 왕의 책무이자 권리다. 다음 왕이 누구인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통한 죽음을 목격했고, 세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무리들 틈바구니에서 기사회생으로 옥상에 오른 정조다.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할아버지는 손자의 왕권 승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세손을 음해하는 무리들을 척결하는데 팔을 걷어 부치지 않았다. 정조는 자력으로 옥상을 거머쥔 것이나 다름없다. 어찌 한이 없겠는가.

영조가 미리 자신이 묻힐 자리를 마련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할아버지를 이곳에 묻지 않았다. 영조가 묻힌 자리는 103년 전 효종이 묻혔다가 천정한 동구릉의 파묘자리다. 조정의 논란 때문인가. 정조의 복수극인가. 풍수에서 파묘자리는 혈이 파괴되어 흉지로 여긴다. 일반 백성들도 묘터를 잡을 때 기피하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자리가 파묘, 무덤이 갖는 곳, 갑육 터, 병영 터 등이다.

정성왕후 승하 당시 영조는 64세였다. 권력이 필할하던 시절이니 산릉공사에 막대한 부자와 공력이 가능했다. 말리서 봐도 흥릉은 높고 웅장하다. 그러나 그는 여기 묻히지 못했다. 흥릉은 길 건너편 장희빈이 묻힌 대빈묘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는 외로운 섬 같은 능이 되어버렸다.

능지를 정할 때 조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흥릉의 빈 자리. 영조가 승하 후 묻힐 자리는 비어 있다.



미소 띤 얼굴의 무인석(사진 위). 석양의 꼬리가 유별히 길다.

영조, 흥릉 위쪽에 마련한 묘지터 묻히지 못해 옆자리 덩그러리게 비어 외로운 섬 같은 능으로

황해도사 이현묘가 상소하기를,

"흥릉 위쪽 비워놓은 자리는 선왕께서 오늘날 같은 처지를 미리 염려하여 정해 놓은 것입니다. 어찌 이를 버리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옵니까? 풍수설은 주자, 공자, 맹자가 말한 것이 아니며 땅 속의 일은 아득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선왕의 유지대로 따르는 것이 가할 줄 아옵니까."

정조가 답하기를,

"장릉(長陵)·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조선 16대 인조와 그의 비 인연왕후 한씨의 능의 동구(洞口)자리도 또한 선왕께서 먼저 정해놓은 곳이다. 유독 흥릉에만 분부를 남겨 놓은 것이 아니다. 풍수를 동원해서 명당을 찾는 일은 이미 정자, 주자도 옳다고 했다. 그러니 다시 명당을 찾아보도록 하라."

정조의 내심이 엿보이는 발언이다. 그 후 대신들이 옛 영릉 자리(효종 파묘자리, 지금의 원릉)가 길지라 주장하고, 이의가 없어 능지로 결정했다. 꺼림칙한 기운이 자욱한 논의과정이다. 이런 연유로 흥릉의 오른쪽 공간은 덩그러리게 빈 채로 남아 있다. 그곳이 아무리 명당이라 해도 영조 아니면 곁에 묻힐 수 없는 공간이다.

정조의 한의 뿌리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에 있다. 열 살배기 어린 애가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 아버지를 도우려는 세력은 없었다. 외할아버지 흥분한, 어머니 혜경궁 홍씨도 아

버지의 편이 아니었다.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閔中錄)>도 사실 문제적 작품이다. 간략하게 살펴보자. 한중록은 혜경궁 홍씨가 쓴 자서전적 회고록이다.

필사본 14종이 있으며, 국문본·한문본·국한문 혼용본이 있다. 사본에 따라 <읍혈록(泣血錄)> <한중록(恨中錄)> <한중만록(閔中漫錄)>이라고도 한다. 전체 4편이며, 제1편은 1795년(정조19), 제2편은 1801년(순조1), 제3편은 1802년, 제4편은 1805년에 각각 씌어졌다. 제1편은 지은이가 회갑 되는 해에 친정 조카의 요청에 따라 써준 글이다. 자신의 출생부터 여덟 때의 추억, 9세 때 세자빈으로 간택된 이야기, 이후 50여 년 간의 궁중생활을 회고했다. 남편인 사도세자의 비극에 대해서는 차마 말할 수 없다며 간략히 언급했고, 후반부에는 정적(政敵)들의 모함으로 아버지·삼촌·동생들이 화를 입게 된 사건의 전말을 기록했다.

제2편은 67세에 쓴 글로, 사도세자 사건 이후부터 정조 초년까지 정적들에게 모함 받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했다. 시누이 화완옹주의 이간으로 정조가 외가를 미워하게 되었으며, 당시의 세도가 흥국영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친정을 말문시렸음을 폭로했다. 삼촌 흥인환과 동생 흥남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며 하루 빨리 누명을 벗을 수 있기를 하늘에 축원하는 내용이다.

제3편은 68세에 쓴 글로 제2편과 내용이 비슷하다. 정조가 예전에 자신에게 효성이 지극했으며 겸손하게 생활하고 학문에 정진했음을 회상하고 있다. 또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와 숙부의 억울한 누명을 후일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되새기며, 어린 순조에게 자신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제4편은 71세에 쓴 것으로, 제1편에서 차마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한 사도세자의 사건 내막을 기록했다.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미움을 받아 뒤주 속에서 죽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서술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 죽게 한 발상이 아버지 흥분한에게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모함이며 아버지는 결백하다고 역설했다.

지은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사도세자 사건으로 비난받는 아버지 흥분한의 결백을 입증하는 내용을 손자인 순조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흥국영 등 정적들의 모함으로 친정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흥분한이 사도세자가 잠변을 당할 때 뒤주를 바쳤다는 혐의까지 받아 아버지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한중록>은 영조실록과 더불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이순신의 난중일기처럼 간박한 당시 상황을 그때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그리고 정조가 죽은 후에 쓴 회고록이다. 억울한 죽음을 밝힌 것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와 친정의 명예회복을 위해 쓴 글이다. 정조는 이런 어머니를 그리 탄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부자간이든 모자간이든 권력이란 함정 앞에서 혈육의 의미가 모호해진다. 글=이우상(소셜가 asdi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흥릉(弘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 서오릉 능역 안에 있는 21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 서씨(貞聖王后徐氏)의 능이다. 1757년(영조 33) 정성왕후가 죽자 이곳에 능을 조성하고 흥릉이라 하였다. 영조는 먼저 죽은 왕비의 유택(遺宅)을 정하면서 점차 함께 묻히고자 하여 허우(虛右)의 제도를 쓸 것을 명하여, 왕비능의 오른쪽 정혈(正穴)에 돌을 '十' 자형으로 새겨 문도록 하였으며, 능의 석물은 석물을 예상하여 배치했다. 영조의 능이 동구릉에 자리 잡게 되자 빈 채로 남아 있다. 능의 상설제도와 양식은 기본적으로 인현왕후의 능인 명릉(明陵)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독특한 양식도 보이고 있어 <소요래의>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의 제도가 반영되어 있다. '흥릉'이란 능호가 많다. 강화읍 국화리에 있는 고려 고종의 능이 흥릉(興陵)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조선 26대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능도 흥릉(興陵)이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신개발품

SMD LED전구 (국산정품)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필라멘트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건전지용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 🔦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다
- 🔦 연등, 영가위패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